

# 시작은 미약, 끝은 창대... 게임 '빅3' 신작 대격돌

(상반기)

(하반기)

**넷마블** 기존대비 신작 흥행못해 '일곱개의 대죄' 글로벌 출시 포문

**넥슨** PC인기 IP게임 모바일 구현 '바람의나라:연' 등 하반기 출시

**엔씨소프트** 4분기 '리니지2M' 선배 울 최대 기대작... 실적반등 기대



'세븐나이츠2' 대표 이미지.



/넷마블 '리니지2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바람의나라:연' 사전예약 포스터.

/넥슨

눈에 띄는 신작 흥행이 없어 올 상반기 정체된 실적을 보였던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빅3' 게임사가 하반기 신작을 통한 흥행작 마련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넷마블의 2·4분기 실적발표를 끝으로 국내 대형 게임 3사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연결기준 넷마블의 2·4분기 매출은 5262억원, 영업이익 3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6.6% 줄었다.

앞서 실적발표를 한 넥슨과 엔씨소프트

도 매출은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영업이익이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들었다.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등 기존 주력작들로 인해 매출은 견조하지만, 신작이 기대만큼 흥행하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 점이 영업이익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N은 올 하반기 신작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특히 넷마블은 실적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넷마블은 하반기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와 고전 게임

을 모바일로 재탄생시킨 캐주얼게임, '일곱개의 대죄' 글로벌 출시 등을 통해 하반기 대작 대결의 포문을 연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하반기에도 '블레이드&소울레볼루션'의 일본출시를 비롯해 '세븐나이츠2', 'A3: 스틸 얼라이브' 등 다양한 장르의 자체 IP 신작 출시를 다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넥슨은 자사 PC 인기 지식재산권(IP) 게임을 모바일로 구현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넥슨은 하반기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람의나라'에 커

뮤니티 요소들을 더한 모바일 게임 '바람의나라:연'을 선보인다. 지난 1일 비공개 시범 테스트 사전예약을 시작한 바람의나라:연은 안드로이드OS와 iOS 버전으로 개발 중이다. 어반 판타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을 표방하는 '카운터사이드'도 하반기 출시된다. 카운터사이드는 애니메이션풍 아트에 기반한 캐릭터와 가상의 현대 문명을 배경으로 했다.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울해 최대 기대작 '리니지2M'으로 실적 반등을 노린다. 리니지2M은 4·4분기 출시 예정으로, 출시 국가는 현재 검토 중이다. 리

니지2M은 엔씨소프트의 효자 IP '리니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리니지는 리마스터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지표가 2배 이상 상승했고, 리니지2는 전년 동기 대비 59%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 윤재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리니지M 출시 당시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리니지2M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리니지2 IP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해외 지역에서도 출시해 리니지M 수준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日 불매운동 영향권 본격 진입

# 항공업계, 여객·화물 급감 '초비상'

8개 항공사 日여객 수송 15% 줄어  
대한항공 화물 11%, 아시아나 9% ↓  
LCC, 상하이 등 中으로 노선 전환



대한항공 항공기.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이 이달부터 항공업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별 일본 노선 수요 감소 현상이 여객을 넘어 화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국내 8개 항공사 합산 일본노선 여객 수송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일본노선 여객수송량은 전년 동월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통상적으로 여행 계획을 1~2개월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따른 예약률 하락의 영향은 8월 초부터 본격화된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이는 7월 말까지 일본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티켓과 숙소 등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결제 취소 후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여객수송량 감소는 8월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에 국내 LCC 업체들은 일본 대신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 티웨이항공은 대구-장자제·엔지노선, 제주항공은 무안-장자제·엔지와 인천-베이징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과 관계 악화는 항공 화물 수송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 화물량은 총 156만49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감소했다. 국내 항공 화물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수송된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화물수송량이 10.5%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은 8.5% 줄었다. 두 항공사가 국내 항공화물

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항공업황 악화가 지속되자 한국공항공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 지방에 있는 국제공항의 여객 수가 급감하자 '항공분야 위기대응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 등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7개 국제공항에서 일본행 여객 수는 7월3주차부터 작년 대비 감소세(-1.3%)를 나타냈으며 같은 달 5주차에는 작년 대비 감소 폭이 1만4000명(-8.5%)까지 확대됐다. /양성운 기자 ysw@

## "카톡 잡아라"... 이통사 '채팅+' 서비스

앱 설치 없이 대용량 파일 전송  
그룹대화·읽음확인 서비스 등

비스를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채팅플러스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처럼 그룹채팅과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가 나왔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문자메시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채팅+(채팅플러스)'의 3사 연동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채팅플러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채택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휴대폰에 기본 탑재된 문자메시지 앱에서 그룹대화, 읽음확인,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문자메시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통신3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채팅플러스에 대한 통신사 간 연동과 서비스 가능 단말기간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그동안 각 통신사 고객끼리만 이용할 수 있었던 채팅(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 서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채팅플러스는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끼리 이용할 수 있었던 RCS 기능을 통신3사가 연동해 채팅플러스가 탑재된 단말기에서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가 이날부터 제공하는 채팅플러스 서비스는 단문메시지(SMS), 영상 전송 가능 메시지(MMS) 기능 모두 가능하다. 또 한글 최대 2700자, 영문 4000자까지 전송할 수 있고, 최대 100명 그룹 대화, 최대 100MB 크기의 대용량 파일도 전송할 수 있다.

채팅플러스가 탑재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 별도의 파란색 말풍선이 표시돼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팅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보여주는 필터링 기능도 있다. 채팅플러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단말 사용자는 기존 문자메시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채팅플러스로 보낸 메시지도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사용처 실태점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주택 구매 등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40조1000억원(11.1%)이나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모델들이 '채팅플러스' 3사 연동 서비스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